

## 第二回全國學校圖書館大會發表論文

# 學校圖書館의 獎學活動

金 斗 弘

### 序 言

全國的으로 볼때 學校圖書館의 一般化는 遙遠한 感이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아직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조차 論議되지 않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一部 地域에서는 오래 前부터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價値를 認識하고 그것 없이는 現代教育 또는 教育的 現代化가 不可能하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우리의 經濟事情이나 그밖의 여러 惡條件들을 考慮에 넣을 때 奇蹟的이라고, 할만큼 學校圖書館이 크게 發達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地方의 이같은 發展은 行政當局의 힘을 거의 입지 않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로지 先覺的인 一線校長과 教師들의 自發的이며 獻身的인 努力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學校圖書館 發展이 이같이 下部에서 일어나는 힘을 基盤으로 하여 成就되었다고 하는것은 자랑스럽고도 마음 든든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教育行政當局은 이 以上 더 沈黙을 지키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積極的이고 좀 計劃的인 指導에 나설 時機입니다.

近者에 와서 忠南, 慶北, 慶南, 全南等 一部 地方行政 當局에서 學校圖書館의 向上을 爲하여 서두르고 있으며, 또 적지 않은 成果도 올리고 있다는 消息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重大한 問題를 地方當局의 選擇에 맡겨 두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學校圖書館을 普及·發展시키는 問題는 選擇의 問題가 아니고, 必須的 課題이기 때문입니다.

最高文教行政機關인 文教部는 學校圖書館의 獎學에 있어서 主導權(이니셔티브)을 掌握하여야 하겠습니다. 文教部는 明確한 計劃과 指導力을 가지고, 命令하고, 援助할 位置에 있습니다.

本人은 이제부터 文教當局이 學校圖書館의 獎學을 計劃함에 있어서 反映시켜야 할 問題를 몇가지 提起하기로 하겠습니다.

### 1. 獎學體系의 確立

獎學活動에 있어서 가장 要緊하고, 또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할 問題는 獎學의

體系를 確立하는 일입니다.

“위로는 文敎部가 있고, 中間機關으로서 道敎育委員會가 있고, 그 管下에 中·高等學校와 市, 郡敎育廳이 있고, 市, 郡敎育廳 傘下에 一線國民學校가 있으니 여기에 또 무엇을 添加하여야 獎學體系가 確立된단 말인가?”고 反問할 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形式的인 體系에는 不足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빈틈없는 體系도 그것이 目的的으로 意圖的으로 利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所用이 없습니다.

文敎部에는 學校圖書館 專擔獎學官 또는 學校圖書館에 特別한 關心을 가진 獎學官이 있어서 全國의 學校圖書館 實態를 把握하고 그것을 根據삼아서 年間 指導計劃을 樹立하여 市, 道에 下達하여야 할 것이며 市, 道에 역시 學校圖書館을 專擔하는 獎學士나 또는 적어도 學校圖書館 事務가 그의 分掌事務가운데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獎學士가 있어서 文敎部의 計劃을 管下에 示達하고, 示達事項의 實踐過程을 指導監督하여야 할 것이며 市, 郡에 역시 그와같은 獎學士가 있어서 一線學校의 動態를 밝게 把握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모든 一線學校에는 圖書館擔當敎師가 指名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圖書館이 있는 學校의 擔當敎師는 圖書館奉仕에 熱中하고 또 向上과 發展을 爲한 計劃을 樹立할 것이며, 圖書館이 없는 學校의 擔當敎師는 學校圖書館을 研究하고, 年次計劃을 세워서 學校長에게 建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하며 一年이 지나면 文敎部는 市, 道를 通하여 市, 道는 中·高等學校의 市, 郡을 通하여, 一年間의 指導成果

를 綜合 測定하고, 反省하여 新年度의 새로운 計劃樹立에 反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일이 이러한에도 光復以後 오늘날까지 近 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最高文敎行政當局은 學校圖書館의 實態調査 한번 한 적이 없고 年間指導計劃 한번 示達한 적이 없습니다.

萬若에 一線校長들 가운데 남먼저 學校圖書館의 教育的 價値를 認識한 先覺者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萬若에 一線敎師들 가운데 學校圖書館의 普及을 爲하여 발벗고 나선 開拓者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萬若에 이들 校長과 敎師들의 主張을 받아들일만큼 開化된 地方教育行政家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釜山이나 그 밖의 先進한 地方에서 보는 바와 같은 學校圖書館의 隆盛을 期待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萬若에 우리 文敎部가 10년이나 15年前부터 先覺한 校長이나 敎師와 같은 또는 一部 地方行政家들과 같은 熱誠을 學校圖書館指導에 쏟아 왔다고 한다면 大韓民國의 行政力이 미치는 모든 地方에 오늘날 가장 앞선 地方의 現況 以上으로 學校圖書館이 發達하였을 것인즉,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이 大會의 必要性은 그다지 切實하지가 않을 것으로 生覺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빠른 셈입니다. 文敎部에서는 學校圖書館 指導體系를 整備하고, 實態를 把握하고, 新年度부터는 計劃的인 指導에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 2. 司書敎師의 職制化

學校教育活動을 大別하면 生活指導와

學習指導의 틀이 있습니다. 이 두 活動은 어느것이 더 重要하고 어느것이 덜 重要한 것이 아니라 꼭 같은 比重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서 生活指導分野는 生活指導分野대로, 學習指導分野는 學習指導分野대로 科學化와 現代化를 爲하여 가진 努力을 다 하고 있는 터입니다.

生活指導分野에 있어서는 先進國의 敎導制가 導入 研究되어 近來에 그 一般化가 進行되고 있으며, 學習指導分野에 있어서는 解放以後 「새 敎育」이라는 이름아래 自學自習, 自律學習 또는 自主學習의 方向으로 이끌어 가려는 努力이 繼續되고 있습니다.

今年들어서, 文敎部에서는 懸案의 敎育公務員 法案에 敎導敎師와 司書敎師의 職制化 條項을 挿入하여 原案대로의 通過를 爲하여 非常한 努力을 기울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은 當局이 敎導敎師와 司書敎師의 比重에 差異를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點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司書敎師의 무게를 敎導敎師의 그것보다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걱정은 터무니 없는 걱정만은 아닙니다. 最近에 全國의 高等學校에 42명의 專任 敎導敎師를 配置한 事實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對해서 도무지 不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專任 司書敎師의 配定에 있어서 敎導敎師의 T/O를 策定한 理由를 알고 싶습니다.

事實 아무리 生活指導法을 科學化시키고 實際指導를 잘 한다고 하여도, 學生들

의 適性把握이나 人性, 進路指導의 80% 以上은 學父兄 母姊가 擔當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反面 學習指度の 問題는 아무리 學父兄, 母姊가 富裕하고 敎育程度가 높다고 하여도 80% 以上은 學校에 依存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것이 더 重要하고 덜 重要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兩者에 對한 學校와 學父兄의 力量의 限界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數値는 무슨 測定値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常識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學習指導法의 改善를 爲한 우리의 努力이 生活指導의 改善를 爲한 努力에 뒤져서는 아니 된다는 結論을 내리는데는 足하리라 믿습니다.

새 敎育 乃至 現代敎育의 中心課題는 學習指導法의 改善에 있고, 學習指導法改善의 目標는 學生들의 自律學習에 있으며 이 自律學習의 實現은 學校圖書館 없이는 期待할 수 없는 일입니다.

光復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새 敎育 運動」이 空轉을 거듭하고 있는 原因은 (적어도 그 原因의 大部分은) 그것을 可能하게 할 條件으로서의 學校圖書館을 만들지 않았고 그 充實을 期하지 않은데 있는 것이라고 本人은 斷言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敎育을 質的으로 變質시킬 수 있는 學校圖書館을 갖추어야 하겠고, 이 圖書館을 맡아서 設計하고, 整理하고, 奉仕하고, 敎育하는 司書敎師의 職制化는 期必코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3. 司書敎師의 訓練計劃

司書敎師의 訓練은 美國의 피바디大學

教授團이 入國한 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教授團에는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基礎를 잡아준 스와이거 女史, 버어제스 教授, 크로스린 氏와 같은 圖書館 專門家들이 參加하여 있었고, 이 분들의 주선으로 피바디 教授團, 延世大 및 文教部의 三者共同으로 司書教師의 訓練에 着手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58년에 5名, 59년에 12名, 60년에 24名, 61년에 26名, 62년에 25名 都合 92名을 訓練시켜 내었으며, 今年에 다시 30名을 訓練中에 있습니다. 이 122名中 約 1할은 처음부터 大學圖書館 또는 그 밖의 圖書館에 근무하고 있었으며,當初에는 學校圖書館을 맡고 있었으나 中途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現職 司書教師로서 머물러 있는 이들의 數는 60名에 不過합니다.

그러므로 現行의 規模와 速度를 가지고 司書教師를 訓練시켜서는 現在의 需要에 도무지 未及합니다. 더욱이 懸案의 圖書館法案이 通過되어 國民校 以上の 모든 學校에서 義務的으로 圖書館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司書教師의 需給은 一大問題化할 것입니다.

慶南道만 하여도 240의 中高校와 803의 國民校가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저 담당하기만 합니다.

窮餘之策으로 政策樹立當局에 다음과 같은 일을 建議하고자 합니다.

(1) 現在 延世大와 文教部가 共同으로 主管하는 司書教師訓練計劃을 大幅 擴張할것.

(2) 梨花女大 圖書館學科에도 同規模의 訓練任務를 부여 할것.

(3) 서울, 大邱, 釜山 等地에 司書教師訓練院을 新設하거나 一部 既存 教員研修院에 司書教師 課程을 新設 할것.

(4) 全國의 師範大學과 教育大學에 學校圖書館科 또는 司書教師課程을 新設할

것.

#### 4. 示範學校, 研究學校의 育成, 指導強化

文教部는 1956년에 馬山女子高等學校에 對하여 學校圖書館 研究任務를 주었고, 그 뒤 마음 놓고 친 다음에 今年에 들어서 비로소 全南의 麗水東國民學校를 圖書館研究學校로서 指定하고 있습니다. 學校圖書館은 우리 教育의 새로운 局面인 만큼 文教部 指定研究學校를 大幅 늘여서 研究成果를 一般化시키고, 圖書館 普及에 이바지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各市, 道에 最少限 一個以上の 學校圖書館 研究學校를 指定하여야 할것으로 압니다.

경남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圖書館研究學校로서 初·中·高 三個校가 指定되어 一個校는 「圖書館教育課程」을, 다른 一個校는 「非圖書資料의 수집과 活用」을 맡아 지 一個校는 「學校圖書館을 통한 學習調查技術의 指導方案」을 各各 研究主題로 擇하여 研究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 20個의 道指定 中·高校圖書館 示範學校와 26個의 各市, 郡의 指定한 國民學校圖書館 示範學校가 있어서 道內 또는 市, 郡內의 學校圖書館 普及任務를 맡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혹은 이와 類似한 研究 및 示範學校 制度를 中央政府의 計劃과 援助아래 全國의 規模로 實施한다고 하면 그 成果는 매우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以上으로써 學校圖書館의 獎學活動이라는 題目아래 獎學體系의 確立, 司書教師의 職制化, 司書教師의 訓練計劃 및 學校圖書館 研究學校와 示範學校 育成強化의 4가지 問題를 우리 學校圖書館 共同의 問題로서 提議하는 바입니다.